

히스패닉사회의 이해

일곱째 마당
아르헨티나

담당교수: 이재학

아르헨티나의 독립과 독재

- 19세기 독립당시 인구 80만에 불과 (당시 멕시코 인구 약 600만명)
- 광활한 뿔뿔스(pampas)와 gaucho(가우초)
- 가우초의 이중성: 독립적, 용맹, 이상적 자유인, 낭만의 상징, 아르헨티나 토착문화의 상징
 - <=> 아르헨티나 근대화의 걸림돌, 무지와 야만의 상징
- 독립 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세력(중앙 집권주의 지지), 뿔뿔스 지역 대지주들(연방주의 지지) 간의 이해관계 대립
 - => 연방주의자인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 집권
 - => 로사스: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의 대지주
 - => 대목장주와 대지주들의 권익 보장

- 로사스의 독재정치=> 아르헨티나의 민족이익과 토착문화 지키려 노력
 - => 지방의 군사지도자들(caudillo)로부터 권력 박탈
 - =>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정치,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
 - => 연방주의자 표방하며 집권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주의자
 - =>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의 대립을 이용, 양파 모두 숙청
 - =>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분리 방지, 독립 후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실질적으로 통일 됨
- 정권유지에 가우초 이용
 - => 살인부대인 'mazorca' 창설
 - => 공포정치, 민중의 친구로 위장=>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 증대("목장에서나 통용될 법을 공화국 법에 적용", "1835년에서 1840년 사이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로사스의 감옥에 들어 갔었다"- 사르미엔또)
 - => 실각
 - => 도밍고 파우스띠노 사르미엔또 대통령 집권(아르헨티나 북부 산후안 출신, 고전적 명저 "파쿤도: 문명과 야만" 저술)
 - => 교육장려, 아르헨티나의 유럽화 추진
 - =>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이민 받아들이기 시작



자료출처: http://en.wikipedia.org/wiki/Juan_Manuel_de_Rosas

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

- 냉동기술 등장

 - => 아르헨티나 육류의 수출길 열림

 - => 경제적 도약

 - => 목축업발달

- 1930년대 1인당 국민소득 세계6위(독일, 스위스, 이탈리아 보다 높음), 교역량 세계10위 (소수의 상류층이 정치와 경제권력 독점)

- 19세기에 지하철 건설, 이탈리아 등의 이민자들 아르헨티나의 3D업종에 종사, "엄마 찾아 삼만리" => 19세기 아르헨티나에 가정부로 취업한 엄마 찾아 떠나는 이탈리아 소년의 이야기

아르헨티나의 이민정책

- 경제도약과 함께 이민의 필요성 대두
 - => 유럽이민의 물결(1857-1943년 사이에 약 660만의 이민자 받음, 1940년 아르헨티나 인구 1,400백만으로 급격히 증가)
- 유럽 이민으로 인한 인종구성의 급격한 변화
- 1778년=> 백인 38%, 인디오 22%, mestizo 3%, 흑인 37%
- 1940년=> 백인 94%, 노동력이 부족한 칠레나 광산노동자가 필요한 페루로 흑인들이 팔려가 흑인인구 급격히 감소
- 1960년대 아시아로부터의 이민 받기 시작함 (한인 이주 시작)
- 21세기 현재 유럽계 백인 98%, 기타 2%

아르헨티나의 정치구조

- 로사스의 공포정치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대지주들이 등을 돌림
 - => 로사스 실각 후 대지주들과 상인들의 연합하여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려 노력
 - => 그 결과 상류사회 민주주의 구조 정착
 - => 보수당(대지주) + 자유당(상인들)
 - => 아르헨티나의 고질적 계급구조와 정치구조의 근본 (대지주들은 hacienda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도시에서 호화생활, 경제력 + 정치적 권한)

이민자들의 소외

- 유럽 이민자들의 상류사회로의 진입 불가능

- => 이민자들이나 내륙의 원주민들이 권력에 접근하는 것 절대 허용 안 함

- => 탱고 탄생(Two to tango), 유럽 이민자들, 도태된 가우초들, 부에노스 아이레스 뒷골목의 선술집과 매음굴에서 방황=> '성적'인 발생배경 ('잡다', '만지다', '다가가다'라는 흑인언어 'tang'에서 유래)

- => 이민자들 시민연합 구성하여 이에 맞섬

- => 1930년 대공황의 여파로 수출감소, 2차세계대전 발발(정치적 중립선언)

- => 정치·경제적 혼란 가중

- => 1943년 군부 쿠데타 발생=> 시민들의 지지 받음

- =>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육군대령 페론(Juan Domingo Perón)=> 군부+노동자계급+자본가 계급의 삼자동맹 구상=> 1946년 46%의 지지 속에 대통령 당선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/wiki/Tango>

페론 대통령: 아르헨티나의 빛과 그림자

- 페론 대통령 => 대외자립, 공업발전, 사회복지 추구
 - => 대농장(hacienda)에서 생산되는 축산품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수출
 - => 수익금으로 공업개발과 사회복지를 위한 자본 충당
 - => 노동자 계급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은 결국 소비를 확대하여 산업화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, 빈민구제 사업
 - => 페로니즘
- (자급자족 경제 VS. 대외 개방형 수출경제 => 한국과 비교)
- 페론 집권 후 노조 지도자 등 각 부문별 이익집단의 대표들을 각료로 기용

로베스피에르식 포퓰리즘

- 로베스피에르- 프랑스 혁명 당시 좌파 자코뱅당을 이끔(빈자들의 변호사, 농민들의 친구)
- 프랑스 혁명기에 생필품 값 상승
 - => 시민들 원성 높아짐
 - => 로베스피에르 “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반값에 먹을 권리가 있다” 선언
 - => 우유값 강제로 내림, 불이행시 단두대 행
 - => 시민들 매우 만족해 함, 열광적 지지
 - => 수지타산 안 맞는 농민들, 젃소 사육 포기
 - => 우유공급량 줄어 우유값 폭등
 - => 우유 값 내리기 위해 건초값을 강제로 내림
 - => 건초재배 업자들, 건초재배 중단 또는 토지용도변경
 - => 건초값 폭등
 - => 대중 폭동 일어남=> 로베스피에르 단두대로 보냄

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

- 페로니즘의 결과=> 연 20%의 임금상승, 대외자립과 공업 개발 정책 실패
 - => 자본재 수입의 급증=> 외환보유고 감소=> 인플레이션 심화, 경제위기
 - => 1955년 군부 쿠데타, 실각, 망명
- 1955-1970년까지 선거로 정권이 바뀐 경우는 단 두차례에 불과(연속되는 쿠데타)
- 아르헨티나 정치의 군부와 페론주의자의 대립구도(정치적 상황에 따른 페론당 합법화와 불법화의 반복)
- 에비타(Eva Perón Evita; 1919-1952)=> 대농장주 첵의 딸, 상류사회에 대한 반발과 증오심=> 노동자계급의 우상 (성녀/악녀)



자료출처: Retrato del Presidente Juan Domingo Perón y su señora esposa María Eva Duarte de Perón (Numa Ayrinhac, 1948)



자료출처: Official state portrait of Eva Peron, Republic of Argentina(1951)

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

• 좌익에 대한 견제로 페론당 재합법화

=> 1973년 9월 선거, 60%의 지지로 페론, 대통령에 재당선

=> 1차산업수출의 부진으로 페론주의 정책 실행 불가능=>
1974년 7월 페론 사망, 페론의 마지막 부인이자 부통령이었던 이사벨이 대통령직 계승(세계최초의 여성대통령)

=> 1976년 3월 비델라의 쿠데타

=> 1981년 비올라 집권

=> 같은해 깔띠에리 집권

=> 과도한 외채, 누적되는 재정적자, 엄청난 인플레이션=>
정치·경제적 혼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3년 영국령 포클랜드섬(Malvinas섬) 공격=> 패배=> 군부의 퇴장(guerra sucia '더러운 전쟁'의 종식)

아르헨티나의 민주화

- 1983년 12월 알폰신 정부 탄생
 - => 정치개혁에 주력, 과거청산주력, 경제정책 실패
 - => 임기를 5개월 앞두고 퇴진 (1989년 인플레이션 4000%)
 - => '경제내전'
- 1989년 7월 페론당의 메넴대통령 당선(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움), 6년단임
 - => 과거의 페론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유주의 시장경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임
 - => 국영기업의 민영화, 관세율 인하, 시장개방
 - => 페론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조를 분열시켜 강경파 탄압함
 - => 개혁정책에 대한 저항 무력화시킴
 - => 페론당 내 좌파일부 탈당, 경제성장

경제위기 및 좌파정권 탄생

- 1991년 1페소 1달러 환율고정(태환정책)=> 수천%의 인플레이션 잡음 (1990년 1344%, 1991년 84%, 1995년 1.7%, 1996년 0.1%)
- 1994년 8월 헌법개정=> 1995년 5월, 압도적 지지로 당선(4년 중임제)
- 집권 2기 경제 악화: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(국민소득 약 50% 증가)<=>부의 분배 실패(빈인빈 부익부, 소비의 양극화), 실업률 증가, 사회복지 감소
- 환율정책 실패, 경제위기, 지지율 급락, 대통령 선거 패배, 실각
- 2000년 급진당의 델 라 루아(De la Rúa) 대통령 취임
 - => 경제위기 극복 못함, 2001년 12월 디폴트 선언, 국가부도, 최악의 경제위기
 - => 실각, 한달 사이에 3명의 대통령 취임
 - => 정치·경제 혼란 지속
 - => 2001년 12월 31일 의회에서 두알데 대통령 선출

키르치네르-페르난데스의 장기집권 야욕

- 두알데 대통령의 경제실정
- 2003년 키르츠네르 대통령 당선(5월 25일 취임- 4년임기, 중임제)
 - => 2003년 4월 1차 투표에서 메넴 전 대통령 및 키르츠네르 후보 당선 (메넴 24.3% vs. 키르츠네르 22%)
 - => 1차 투표에서 페론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60.3%
 - => 페론당 두 후보끼리의 결선투표 앞두고 메넴 사퇴 (메넴은 무늬만 페론당, 진정한 페론주의자의 승리)
- 집권당시 경제상황
 - => 폐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, 실업률 20% 이상, 국민의 55%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, 1400억불의 외채
 - => 군부개혁, 무리한 외채상환 거부 천명,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반대 천명
 - => 집권 기간 중 연 9% 경제성장, 실업률 8.7%(2002년 22%), 인플레이율 9.8%
1인당 GDP 2003-2006년 동안 40% 늘어남(\$5462)

=> 2007년 대선에서 재집권 포기, 부인 대신 출마

=> 07년 10월 12일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당선

(아르헨티나 두 번째 여성 대통령, 아르헨티나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,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, 뉴에비타 애칭, 지지율 급락, 남편의 수렴청정을 받는 남편의 대리인이라는 비아냥)

=> 2011년 대선에서 남편이 부인을 대신하여 대선

재도전 야욕

=> “문제는 경제” 아르헨의 선택(중앙일보 07년 10월 28일)

=> 키르츠네르 정부 인플레이션 및 각종 경제수치 조작 의혹 (키르츠네르의 경제장관을 역임한 07년 야당대선 후보 로베르토 라바그나 “실제 인플레이션은 정부발표의 두배에 이른다”고 주장)



자료출처:

http://en.wikipedia.org/wiki/N%C3%A9stor_Kirchner,
http://en.wikipedia.org/wiki/Cristina_Fern%C3%A1ndez_de_Kirchner

=> 공식 발표 인플레이 수치는 10% 미만, 실제 인플레이 수치는 25% 정도의 위험수준

=> 노조, 매년 평균 20%이상 임금인상 요구
(2006년 21%, 2007년 22% 인상 합의)

=> 키르츠네르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: 에너지와 생필품 가격 통제

=> 외국인들의 투자 외면, 투자부족, 인플레이션 유발

=> 에너지 위기(대중교통수단 운행 중단), 물부족 사태

=> 20% 이상(키르츠네르 집권 전 55%)의 빈곤층 비율과 계속 증가하는 범죄율

=> 세계 에너지 및 식량 가격 폭등 => 식량 가격 상승은 바이오 에너지 사용 확대 및 국제투기세력이 원인 => 2008년 상반기, 크리스타니 페르난데스 대통령 => 국제금융 투기세력이 국제곡물시장으로 옮겨가 국제곡물가 폭등을 부추긴다고 비판 => 자국의 인플레이션 억제, 농산물의 내수 공급 및 재정수입 늘리고 국제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막기 위해 수출세 부과 정책 실시 => 2008년 봄,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유발 => 지지율 20%대로 하락

=> 물가상승율 25%대 추정 (정부는 9%라고 발표)

=> 2008년 여름,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, 세계 금융위기,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폭락

=> 2010년 10월 28일,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(현역 연방하원 의원) 심장마비로 별세 (2011년 10월 대선 출마 물거품)

=> 경제위기 제대로 대처 못해 지지율 급락한 크리스티나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발생(20%까지 떨어짐)

- 중국, 브라질 등에서 아르헨티나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
=>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
- 2011년 11월 23일: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 (53% vs. 17%)
- 라틴아메리카 첫번째 재선 성공 여성대통령
- 경제위기 속에서도 긴축재정이 아닌 정부지출 대폭 확대
- 포퓰리즘 + 동정표 + 에비타에 대한 향수 자극으로 승리
(2011년 7월 정부청사에 31m의 에비타 초상 설치)
- 국가 총예산의 19%인 170억달러를 국민생활 보조금으로 사용
- 노인연금 37% 인상

- 무주택 가정 집세 보조금을 매달 1200페소로 50% 넘게 인상(2011년)
- 유로케이블 TV 축구중계=> 무료 지상파 전환(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 매년 1억5000만달러 지급)
- 무상에 가까운 전기, 가스, 유류세 => 에너지 소비 급격한 증가
- 월수입 5200페소(약140만원, 전체가구 80%에 해당) 이하일 경우 결혼 시 900페소, 출산시 600페소, 자녀 지원금 월 수입에 따라 1인당 136-270페소씩 지급
- 국민에게 약속한 보조금 재원 바닥
 - => 2008년부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 쓰기 시작
 - => 재원 부족 지속
 - => 대통령이 마틴 레드라도 중앙은행 총재에게 외채상환을 위해 외환보유액 풀 것을 요구
 - => 거절하자 총재 해임 (2010년 1월)
 - =>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보유액 인출
(2010년말 520억달러 => 2011년말 467억달러)
 - => 외환보유액 달러를 시장에 품
- 인플레이 증가(2011년 정부발표 10%, 실제 25-30%)

아르헨티나의 현주소

- 인구 3,953만명
- 1인당 GDP: 1만1453불(2012년)
- 키르츠네르 정부는 1,000억불의 외채 재조정 (Swap) 협상에 성공
-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국채 매입 및 석유 저가공급 약속 이끌어 냄=> 2008년 하반기 유가 폭락
- 2005년 12월, 브라질,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미 종단 가스관 건설에 합의
-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3-05년 동안 3년 연속 9%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

- 붕괴된 중산층 회복 안됨, 기업투자회복 부진, 민간부문 노동력 수요감소, 소비의 양극화=> 고실업률(20%) 지속
- 고물가, 농축산업 편중의 산업구조, 공공요금 동결정책, 최저수입가 제도=> 외국기업 및 한국기업이 진출저해 요인
- 재정흑자 지속, 고인플레이션(11.5%)=> 조세율 지속적으로 상승(04년 22%=> 05년 22.5%)
=> 세수가 17% 급증, 상당폭의 세수증가에 공공부문 흑자규모 유지(세입중 부가가치세, 소득세, 부유세가 약 55% 차지)
- 역내 국가와 협력강화=>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(FTAA) 추진 반대, 남미 국가간 단합 강조, 베네수엘라, 칠레(군사협력)와 연대 강화, 대 브라질 무역적자 지속(브라질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)

-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, 원자재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 직면
- 2008년 10월 22일, 아르헨티나 정부의 민간 연금펀드 국유화 발표=>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,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펀드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=> 정부가 연금펀드의 자산을 팔아 국가 부채를 갚으려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임=> 아르헨티나 증시, 이틀 연속 10% 이상씩 폭락
- 2001년 950억 달러의 채무 불이행 선언 이후 제2의 채무 불이행 사태 재현 우려
- 2008년 상반기까지 유행했던 미국이 잘못돼도 신흥시장은 끄떡 없다는 Decoupling(탈동조화) 이론의 오류 드러남=> 요동하는 신흥시장
- 2009년부터 이웃 브라질로의 곡물과 수출 증대, 2010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11.8% 초고속 성장 기록 (빈곤의 땅 오명 지속- 신문기사참조)
- 중국으로의 곡물수출도 증대